

■ 남구소년소녀합창단 필리핀 공연

아름다운 하모니 “엥헬레스가 반했다”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이 필리핀 아누나스 바랑가이 마을 농구장에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고 있다.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엥헬레스시와 클락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46명의 어린 단원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대풍 피해를 입은 현지인 가정에 쌀과 옷 등을 나눠주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합창단원들이 필리핀에서 펼친 공연 모습과 봉사활동 현장을 스케치한 내용이다.

클락 SM몰 등서 환상의 화음 선보여 ‘갈채’ 수해지역 찾아 쌀·옷 나눠주며 봉사활동도

필리핀의 아침 햇살은 우리의 여름철 맑았보다 뜨거웠다.

여행 첫날인 9월7일 오전 호텔 로비에 모인 어린 단원들은 지쳐 있었다. 더위도 더워지만 전날의 오랜 비행과 부족한 짐 탓에 훤히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늘은 공연이 있는 중요한 날이라는 김주곤 지휘자의 말에 아이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조금 넘어 버스가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 나갔다. 1시간 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엥헬레스 주변에 있는 아누나스 바랑가이 마을. 7·8년대를 연상케 하는 도시 풍광에 아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비록 회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단원들은 정성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아름다운 나리’와 ‘디즈니 판타지’ 등 귀에 익은 노래가 농구장 안을 가득 채우자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현상의 목소리 감동 백배

이날 행사는 오은택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학부모 대표 등 우리 측 인사들과 아카페토 아누나스 바랑가이 마을 캠프, 김광태 필리핀 중부루순한인회장 등 현지 내빈들도 참석해 공연을 축 하했다.

“고려요양교육생모집(수시)”

고려요양원 개원 예정(11월 중)

중풍, 치매 전문 활법시술

거동불편하신 분 판정신청해 드립니다

취업상담 : 고객센터 운영합니다

원장 윤삼도 장로, 서울대학교 활법사

활법(活法) :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법

고려요양교육원★천사복지센터

위치 : 용호동 성모병원 밑 용호24시 셀프세차타운 맞은편
☎ 612-8876, Fax 612-8872, H.P : 010-9630-5619

고객님이 주신 사랑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23
(핸드폰 051-123)

봉사로 아누나스 바랑가이 지역 주민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태 한인회장도 “필리핀 6·25전쟁참전기념일을 맞아 펼쳐진 오늘 공연은 한국과 필리핀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한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공연과 봉사를 마친 단원들은 현지인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음 공연을 위해 숙소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아이들은 차창 밖을 응시하며 공연에서 느낀 감정을 되씹고 있었다.

오후 4시 50분 오늘의 두 번째 공연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이번 공연장소는 오전의 무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클락 SM몰은 우리나라 할인을 보다 몇 배는 커 보였다.

‘아리랑’으로 하나된 콘서트

그곳 한가운데 무대가 꾸며져 있었고 공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이 운집해 있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아이들의 눈에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빛나보았다. 오은택 의원과 김은자 모임 회부회장의 얘기가 인상적이다.

“이번 필리핀 공연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은 어린 단원 스스로 일 것입니다. 화음과 하모니를 통해 사랑과 우정을 배운 것 이지요”

되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번 공연에 함께한 소프라노 박희정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면서 분위기는 최고조를 향해 달렸다. 단원들이 포크송 멜од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런던다리(영국), 오수제네(미국), 아리랑(한국) 등의 세계 각국 민요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무대를 정식하기 시작했고 꾼부랑 할머니, 아름다운 나라 등 주옥같은 노래가 물 전체를 장악했다.

모든 공연이 끝나자 객석을 가득 채운 500여 명의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객석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았다. 한류열풍이 이곳에도 세차게 불고 있었다. 자신을 소녀시대 팬이라고 밝힌 니콜(18)양은 “마나먼 미국까지 찾아와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준 합창단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기회가 되면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문화를 익히고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공연장을 빠져나온 어린 단원들은 만민가 교차하는 듯 서로를 안으며 격려의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김주곤 지휘자는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하게 잘 따라 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난 9일, 공항에서 다시 만난 단원들의 모습은 훌쩍 커보였다. 오은택 의원과 김은자 모임 회부회장의 얘기가 인상적이다.

“이번 필리핀 공연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은 어린 단원 스스로 일 것입니다. 화음과 하모니를 통해 사랑과 우정을 배운 것 이지요”

정명선 주무관

비록 조리한 무대였지만 감동은 백배인 공연이었다. 모든 연주가 끝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공연에 이어진 봉사활동은 단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현지에서 구입한 쌀 400kg을 조그마한 봉지에 나눠 담아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어린 단원들은 또래 아이들에게 쌀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활짝웃음을 피어올렸다. 이번에는 단원들이 집에서 가져온 옷과 가방, 화羞품 등을 나눠주자 현지인들은 앞 다퉈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입지 않은 옷과 물품을 귀하게 여기는 필리핀 아이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노유정(대남초교·5) 단원은 “우리는 거울펴보지도 않는 물품을 받고 즐거워하는 필리핀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사실 이곳은 지난달 불어 달친

태풍 ‘짜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주위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래서 이번 합창단의 방문이 주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반가웠던 것.

현지수재민 위로 한마당

아카페토 아누나스 바랑가이 마을 캠프는 “지난번 태풍으로 20여명이 죽고 가죽 재가 물살에 떠내려가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합창단의 공연과

500여 명의 관중들이 보여 성황을 이루 클락 SM몰 공연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모 형제처럼...”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대표 배 도성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회장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91-10 TEL. (051) 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TEL. (051) 582-1041

기장병원 장례식장 TEL. (051) 724-1024 오동산업 TEL. (051) 627-4880

부산 스憔시·골프클럽 (스憔시,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TEL. (051) 625-8626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빈소사용료 30% 할인
장의용품비 30% 할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30215-중-5368호



진료안내
양악수술 / 임플란트
심비보철 / 치아교정
치아미백 / 악교정술
심미치료 / 소아치료
보존치료

진료시간
평일 : 09:30~19:00
토요일 : 09:30~13:00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 12:30~14:00

대학생 과외가 아닙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전문과외선생님들의 과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120시간 교육받은 정규직 과외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육인!
남구 초, 중, 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전문과외선생님을 만나보세요~

성적향상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NAVER
교육인
24시간 연중무휴
상담가능!!

교육
www.smartdalu.com

본 광고는 유료광고이며 발행처는 모든 학원 (주)한국스쿨입니다.
(주)한국스쿨은 사업자登記번호 617-81-34004

교육
문의 051)755-3980